

행복해지는 연습

초감 트롱파(티베트 승려)

<1> 티로파와 나로파

내면 일깨우는 가르침... “자비심이 에고 살해”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刊)은 티베트 불교의 영적 스승인 나로파와의 만남을 담은 책이다. 티베트 불교 중에서도 요기와 요기니를 중점으로 배출한 카규파의 시조는 티로파로, 나로파는 그에게 법을 전수받은 유일한 제자다. 그 후 나로파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는 티베트 금강승 불교의 패러다임이 됐다. 저자 초감 트롱파는 이 책에서 나로파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1972년 뉴욕 세미나와 1973년 카메츨링 세미나에서 강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로파가 티로파로부터 법을 전수받는 여정을 바탕으로, 스승과 제자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 나는 깨달음에 대한 명상의 말씀을 들려준다. 본지는 책의 내용을 발췌·요약한다.

<편집자 주>

인도 최고의 불교학자 '나로파'

나로파(Naropa, 1016~1100)는 11세기 인도 북부 사람이다. 그는 왕실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오직 일념으로 마음을 닦았다. 그의 마음은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가득했으며, 관심이라곤 오로지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청년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왕실을 계승해야 한다는 부모의 간청에 못이겨 그는 결혼에 동의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8년째 되던 해 자신의 삶 전부를 다르마에 헌신하고픈 그의 욕구를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어 아내 나구마의 동의를 얻어 이혼했다. 그리고 아내는 스님이 된 전남편의 제자가 되어 함께 공부를 했다.(그리고 후에 대승인이 되었다.)

나로파는 당대 최고의 명문 나란다 불교 대학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의 지성은 날로 신장됐고 학문의 조예도 깊어졌다. 해박한 학식과 능력이 합쳐져 그는 나란다대학의 승원장 겸 학장이 되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불교학자로서 이름을 날렸다.

이 무렵(그의 나이 40세 즈음해서)나로파의 관심을 탄트라에 쏠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그는 태양을 등지고 책을 보고 있었다.(태양을 마주보지 않고 등졌다는 것은 당시 그가 현실에 대해 맺고 있었던 정신적 관계를 상징한다)이때 그에게 비전이 나타난다. 너무나 추한 여인 하나가 그 앞에 나타나서 그가 다만 책에 써 있는 말만을 이해할 뿐 그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인은 또 진정한 의미를 알아낼 유일한 길은 스승을 찾는 것인데, 그 스승은 바로 그녀의 오빠인 티로파(Tilopa, 989~1069)이니 그를 찾으라고 가르쳐 준다. 그리하여 나로파는 떠난다.

나란다대학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그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고, 자신들의 등반인 그를 빼앗길 수 없다며 그의 사직을 반대했다. 하지만 나로파는 40여년 동안 쌓은 명성과 업적을 버리고, 당대 최고의 불

교대학장직도 버리고,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이튿날의 수행자가 되어 스승 티로파를 찾아가는 외로운 여정에 오른다.

그 길은 험난했고 그를 좌절시키는 극단적인 사건들로 점철된다. 그 여정길에서 나로파는 티로파를 만나는 커녕 11가지나 되는 무시무시한 비전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절망한 나로파가 자살하기 직전에 티로파가 나타나서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다. 티로파는 나로파에게 일련의 상징들을 보여 주었고 나로파는 그를 이해했다. 그런 다음 티로파는 1년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1년이 끝나는 날 티로파의 몸은 약간의 움직임만을 보였고, 이때 나로파는 얼뜨대 절하며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티로파는 나로파에게 사원의 높은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한다. 그 말을 따라 뛰어내린 나로파의 몸은 곳곳의 뼈가 부러졌고 극도의 고통에 휩싸였다. 하지만 티로파의 손이 한 번씩 지나가자 아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티로파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런 과정이 열한 번이나 더 반복됐다. 열한 번이나 더 티로파는 1년 동안 미동도 없이 냉담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면 나로파는 절을 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때마다 티로파는 나로파를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온통 화상을 입게 하고, 때로 때려 죽기 직전까지 가게 만들고 거머머리에 몸의 피를 빨아 먹게 하고, 불꽃이 이글거리는 가시나무로 그를 찌르고, 죽기 직전까지 달리게 만들고,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두들겨 패고, 다시 한 번 죽을 만큼 때리고, 한 여성과의 관계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고, 나로파의 후실을 티로파에게 주게 한 후 티로파가 그녀를 학대하는 것을 지켜보게 만들고, 나로파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라내서는 그를 티로파에게 만달라 공양물로 올리게 했다.

이런 고문이 행해질 때마다 티로파는 손끝 하나도 나로파를 원상태로 돌려놓았고, 그리고는 귀중한 가르침을 내려 주었다. 이렇게 하여 얻은 가르침들이 나로파의 여섯

가지 법을 포함한 법으로 천 년 동안 카규파와 다른 법맥을 통해 전해 내려왔다.

더 많은 과제와 시련, 그리고 가르침이 있을 후에 마침내 이심전심을 통한 마하무드라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티로파는 나로파에게 모든 생명과 존재에게 그 혜택을 가져다 주라고 말했다.

이때 티로파가 예견한 대로 후에 마르파가 티베트에서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나로파를 찾아와 제자가 됐다.

마르파에게 가르침의 전수를 마쳤을 때 나로파는 앞으로 마르파에게 밀라레파라는 위대한 영적 아들이 생키리라고 예언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로파는 티베트 쪽을 향해 3번 머리를 끄덕였다. 그와 함께 그곳(인도 북부의 풀라리히지방)의 모든 나무들이 티베트를 향해 절을 올렸다. 오늘날에도 그 나무들은 여전히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 서있다.

나로파의 삶에 대한 트롱파 린포체의 해

“

나로파, 나란다대 학장직 버리고 스승 티로파 찾기 위해 여정 올라 티로파, 나로파에 혹독한 고문 겪게 해 고문 후 나로파가 받은 가르침은 천년동안 카규파 법맥통해 내려와

”

설은 아직까지 그다지 많이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수행길의 본질을 밝히는 수준까지 다가가지 않았다. 그의 생각을 이해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해설은 기본적 소양을 전해준다. 특히 트롱파가 서구에서 가르침을 펼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왜 그렇게 인습적인 삶에 영성을 알맞게 통합하려는 서구사회의 시도를 영성에 대한 미온적 접근법이라며 계속 질타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그는 영적 진리나 수행을 에고의 만족수단으로, 즉 행복, 건강, 사회적 성공을 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영적 물질주의를 개탄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나로파가 그 추한 여인을 흘깃 본 순간부터 집착과 매임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떨쳐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파의 삶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트롱파 린포체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성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로파가 얻기 위해 모든 삶의 안락을 다 버렸던 영성, 가공되지 않은 원래 모습 그대로의 거친 영성을!



카규파의 시조인 티로파의 탕카

트롱파 린포체와의 대화

학생: 저는 나로파가 지시받은 몇 가지 일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구부의 가르침과 부처의 가르침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로파의 비전에는 그런 모순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에게 이를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온정성과 분별있는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하면 안돼!” 다른 한편에서는 “그걸 해!”라고 말합니다. 어느 편을 택하든 불쌍한 나로파는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가 만약 이를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무언가를 잘못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트롱파 린포체: 아마도 그 순간에 죽어야 할 이 같은 것은 없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학생: 그래도 역시 그것은 정신적 투사였 아니냐 죽이는 행위입니다. 만약 꿈에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트롱파: 그건 아주 다른 경우입니다. 꿈에서는 자신의 마음의 투사를 대하는 거죠. 자신이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 해도 실제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 그래도 여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가 없었다 해도 무언가가 존재하잖아요.

트롱파: 그래요. 무언가가 존재하죠. 바로 당신의 투사, 당신의 신조, 당신의 저항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다만 무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학생: 그것을 죽이면 살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트롱파: 깨달음을 얻는 것도 에고를 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그것은 죽이는 것이므로 온전하지 않잖아요.

트롱파: 그것은 온전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경우 에고는 너무나 효율적이고 지극히 정확하게 살해되었기에 이제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에고의 기억마저도

초감 트롱파(1940~1987)는



티베트 카규파의 11대 활불. 승무원 승원의 최고 승원장으로서 불교 19세에 신학과 철학의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케토학위를 받았다. 1959년 티베트를 떠나 인도에서 프래다 베디 여사와 함께 일하다가 1963년 아롱 린포체와 함께 영국으로 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 비교종교학과 철학, 예술을 공부했다. 1968년 아롱 린포체와 설립한 스코틀랜드의 샴어링 승원은 유럽 굴지의 수행센터로 성장했다. 1969년 대형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후 삶의 전환기를 맞아 법복을 벗고 영국 여성과 결혼 후 미국으로 이주해 삼발라 센터를 설립, 이후 어려운 불교용어를 가장 근접하고 알기 쉬운 영어로 날카롭게 번역해 내면서 변화무쌍한 가르침의 방식과 파격적인 언행, 디오나소스적인 품성으로 미국 불교의 한 시대를 리드했다.

살아나지 않아요. 죽임의 행위가 아주 훌륭한 거지요.

이에 반하여 우리가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경우 우리는 그를 온전히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죽일 수 없고 그의 친척들도 죽일 수가 없어요. 무언가는 항상 남지요.

하지만 깨달음의 증득에 수반되는 에고의 죽음은 온전한 작업입니다. 에고의 이름과 개념까지도 덩달아 죽어버립니다.

학생: 전에는 명상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까?

트롱파: 어떤 자기 말인가요?

학생: 어쨌든 제 생각에는 친구다운 것 같지 않아요.

트롱파: 그것은 친구다운 행위이고 자비의 행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에고가 살해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살인은 증오 때문에 일어나지요. 하지만 에고의 살인은 자비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놀랍게도 작업이 완전한 것입니다. 에고의 살인은 다른 종류의 살인에 비할 때 더 없이 완전한 살인입니다.

학생: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니까요.

트롱파: 꼭 그렇다기보다는, 비참한 상황을 존중하는 겁니다.

정리=나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에서 최면화 강의

KBS 3모임 대한민국 MBC 생방송 오마이뉴스
SBS 미워도 다시 한번 JTBC 부모하기
YTN 그 여자 그 남자 TV조선 가족두끼
MBN 현정로프 특종세상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술루션 엑스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매주 화요일 강의 (1회 무료수강 후 접수 가능)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때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 형사 약사요...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잠재능력 개발의 산실
한국최면과학원
현재 접수중

http://www.hypnos114.com
042) 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